

건설업 ESG 확산과 기업 거버넌스 대응 방향

2024. 1

이지혜

■ 서론	4
■ 거버넌스의 정의 및 관련 제도	6
■ 건설업 거버넌스 현황	15
■ 건설업 거버넌스 대응 방향	24
■ 결론	32

- 본 연구는 ESG 경영의 핵심인 거버넌스(G, governance)를 정의하고, 건설업 거버넌스의 현황 파악 및 방향성을 설정함.
 - 최근 세계적으로 ESG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ESG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등 ESG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ESG는 그 중요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 체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 환경(E), 사회(S) 분야와 긴밀히 연결된 ESG의 핵심 분야임.
 - 좋은 거버넌스는 지속가능성, 참여, 책임, 투명, 공정, 포용, 신뢰 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의 소유 및 통제구조를 의미하는 ‘기업지배구조’보다 광의의 개념임.
- 기업의 거버넌스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이에 거버넌스 관련 제도는 ‘거버넌스’가 아닌 ‘기업지배구조’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며, 제도 마련의 초기 단계로서 일부 기업에 적용되고 있으나 점차 확산될 예정임.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2017년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되고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공시로 전환되었으며, 점차 대상기업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대상을 늘릴 예정임.
- 건설업은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타 산업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위주의 ESG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 및 중견기업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임.
 - 수주나 자금조달 등 성공적인 사업 수행의 조건일 뿐 아니라 건설업에 연관되어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지켜나감으로써 건전하고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발간 건설기업은 약 20여 곳임. 전체 건설기업 수가 87,239개(2022년 기준)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극히 소수의 대기업만이 ESG 경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견 및 중소기업의 ESG 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건설업 거버넌스 중요성에 따른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음.
 - ① ESG 경영추진 및 성과공유 : ESG 경영추진에 대한 리더의 의지와 경영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 ② 기업지배구조 개선 : 주주의 권리 보호,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립되어야 함.
 - ③ 준법·윤리경영 : 기업 내 준법·윤리경영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해야 함.
 - ④ 리스크 관리 :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함.
- 기업의 효율적 시스템 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건설업에 속한 기업과 개인 모두가 거버넌스에서 추구하는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공유해야 함.
 - 한 명의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업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 이해관계자를 배려 및 존중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성숙한 법인격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 ESG 경영은 건설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I 서론

최근 세계적으로 ESG¹⁾에 관한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2023년을 ‘ESG 재도약의 해’로 삼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 경제 구축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22. 12)’을 발표하는 등 ESG 경영 및 관련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04년 ‘국제연합 글로벌 콤팩트(UNGC)’의 공개보고서에서 ESG가 처음 언급된 이후 이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지속됨.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등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짐.
-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ESG 경영·투자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ESG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ESG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ESG 중 거버넌스(G, governance)는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 체계’로, E와 S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 G는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분야인 만큼, ESG 경영이 추진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의사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G는 E와 S의 실행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임. G 분야는 ‘ESG의 내재화’를 이루어내는 ESG의 핵심 분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ESG에 관한 최근 연구는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E 분야와 EU 공급망 실사법 등과 관련된 S 분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상대적으로 G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음.

특히 건설업은 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ESG의 중요성이 높으나, 건설업의 이미지는 ESG와는 거리가 먼 상황임.

- 건설 사업은 다수 간의 계약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업 참여자 간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권리와 요구를 파악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함.
-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며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는 건설 사업의 특성상 여러 투자자의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투입되므로, 투자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높음.
- 건설 사업은 실외에서 이루어지며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의 안

1)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거버넌스)의 약자임.

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건설 생산품은 그 품질이 확보되지 못했을 때 많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확보가 중요함.
- 건설 사업은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
- 이처럼 건설업은 투자자에서 근로자, 사용자,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으며, 대규모 사업이 다단계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기에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인해 건설업과 관련해 부정부패와 부실 공사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게다가 최근 여러 차례 발생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건설업의 ESG 경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ESG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기업과 투자자 등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음.

- 2022년 1월 광주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한 사고에 이어, 최근에는 인천 검단신도시의 GS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함. GS건설은 1,666가구 규모의 해당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는 것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비용은 건설비용, 철거 비용, 지체보상금, 손실 비용 등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또한, GS건설의 주가가 하락하고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악화됨. 이러한 사고는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나 채권자 등에게도 큰 손해가 발생함.
- 이번 사례와 같은 사고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안전, 투자자의 권리를 모두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ESG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ESG 경영의 핵심인 거버넌스(G) 분야와 관련된 국내 제도 및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업 거버넌스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함.

- II장에서 거버넌스의 정의와 좋은 거버넌스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함.
- III장에서 건설업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건설기업의 거버넌스 관련 활동, 거버넌스 관련 국내 제도, 건설업의 기업지배구조 현황을 파악함.
- IV장에서 건설업 거버넌스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V장에서 결론을 제시함.

II 거버넌스의 정의 및 관련 제도

1. 거버넌스란?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에서는 거버넌스를 ‘조직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함.

 - ISO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사회적 책임(SR :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안으로,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의 7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

- OECD에서는 기업 거버넌스를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지속해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발표함.

 - 기업의 목표 설정, 목표 달성 수단, 성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구조를 제공하고 기업 내에서 권한과 책임의 분배 및 의사결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함.

- 현재 많은 국가와 주요 국제기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OECD에서 1999년 발표한 ‘기업지배구조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임.

 - 전 세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G20/OECD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이익 창출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원칙’을 발표함.
 - OECD 원칙은 FSB(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위한 주요 기준(Key Standards for Sound Financial Systems)’,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은행 기업지배구조 지도기준(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OECD의 ‘보험사 및 연금기금 지배구조 지도기준(Guidelines on Insurer and Pension Fund Governance)’의 기초 등으로 활용되며,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country review) 작성 시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을 사용함.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I)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강화, (II) 주주권, 주주 평등 및 주요 지분 기능, (III) 기관투자자, 주식시장, 기타 중개 기관, (IV)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V) 공시와 투명성, (VI) 이사회 책임이라는 6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장은 1개의 상위원칙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수의 하위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주요 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구성 및 내용

장		주요 내용
I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기업지배구조체계(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의 기능 강화 기업지배구조관행(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과 감독당국의 책임분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적 요소의 품질과 일관성 제고 좋은 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주식시장의 기능 강화 등
II	주주 권리와 주주 평등대우 및 주요 지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주요결정이 주주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주주의 정보접근권, 의사결정 참여권 등 주주의 기본적 권리를 강화 관계자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 승인, 집행간부 보수결정 등에 대한 주주총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 차등의결권(different voting rights) 제도 등 지배권 통제장치에 대한 공시 강화 등
III	기관투자자, 주식시장 및 기타 중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체인(investment chains)을 통한 건전한 인센티브 실현을 위해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의 역할 강화 투자자들에게 분석·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기관, 분석기관, 중개기관, 평가기관 등의 직무적 완결성을 저해하는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의 방지 및 공시(disclosure) 의무 강화 역외상장(cross border listing) 기준 도입 등
IV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법률상, 계약상 권리 인정 및 적극적 협조의 강화 이해관계자들의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한 정보접근권 보장,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부여 등
V	공시와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재무성과, 영업성과, 기업목적, 주요주주, 보수, 관계자거래, 위험요소, 이사 관련 정보 등을 주요 공시대상으로 규정하고 비재무적 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에 대한 공시 강화 등
VI	이사회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전략에 대한 검토, 경영진의 임명과 보수, 기업합병과 기업매각 등에 대한 감시, 기업 회계 및 재무보고시스템의 완결성 보장 등 이사회가 담당할 주요기능에 대한 기준(guidance) 제시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세무기획(tax planning), 내부감사 등에 대한 이사회 역할 강화 이사에 대한 교육, 평가 권고 보수, 감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권고 등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 조사연구자료,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 한편, 거버넌스는 ‘기업지배구조’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기업지배구조’는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보다 좁은 의미를 지님.

-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통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주의 권리 보호,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다루며,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생각할 수 있음.

■ 다만, 기업지배구조는 의사결정 체계 및 구조를 의미하는 거버넌스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거버넌스는 조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의미하며,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윤리,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책임감 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구조와 프로세스, 권한과 책임의 할당, 정보의 투명성, 리스크 관리, 윤리와 규범 준수, 모니터링 및 감사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업지배구조, 즉 소유구조와 의사결정 구조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음.
- 좋은 지배구조는 조직 내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리더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좋은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활용됨.

■ 본 연구에서는 이미 제도 등의 명칭에서 ‘지배구조’라고 명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G를 ‘지배구조’가 아닌 ‘거버넌스’로 번역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지배구조’보다 큰 관점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종합하자면, ‘거버넌스’란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 체계’로 이해할 수 있음.

- ESG 경영의 핵심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라고 볼 수 있음. 기업의 이윤만을 생각하던 과거의 단기적이고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속해있는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생각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임.
-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 체계’에서 ‘올바른’이라는 단어에는 다양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떠한 거버넌스가 좋은 거버넌스인가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함.

■ 거버넌스는 ESG 경영 추진을 위한 핵심 분야로서, E, S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 거버넌스는 E(환경)와 S(사회) 분야의 추진과 이행력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라는 점에서 ESG의 원동력이 되는 핵심 분야임.

2. 좋은 거버넌스란?

❑ 국제기구의 좋은 거버넌스의 정의에는 지속 가능성, 포용, 참여, 신뢰 등의 가치가 포함됨.

- OECD는 좋은 거버넌스를 장기 투자, 재무적 안정성과 기업의 완결성(business integrity)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더 강력한 성장과 포용적인 사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함.
-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는 좋은 거버넌스에 대해 ① 참여, ② 합의 지향, ③ 책임, ④ 투명, ⑤ 대응, ⑥ 효과 및 효율성, ⑦ 공평, ⑧ 표용의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의함.
- ISO26000에서는 좋은 거버넌스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사회, 환경적 책임 원칙을 의사결정과 실행에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함.

❑ EU는 2008년에 좋은 거버넌스의 12가지 원칙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는데, 이 원칙에는 ① 선거, 대표, 참여의 공정성, ② 민감도, ③ 효율성과 효과, ④ 개방성과 투명성, ⑤ 법의 지배, ⑥ 도덕적 행위, ⑦ 역량, ⑧ 혁신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 ⑨ 지속가능성 및 장기 지향성, ⑩ 건전한 재무관리, ⑪ 인권, 문화 다양성 및 사회적 결속 ⑫ 책임성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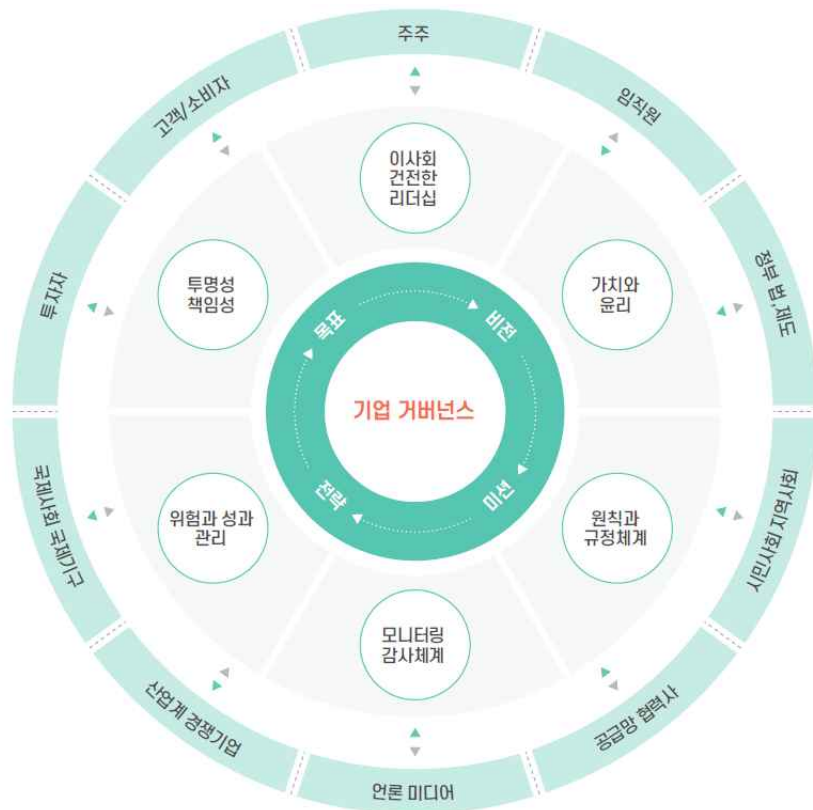
❑ 'ESG 경영'은 '이해관계자 경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2020년대에 들어서서 '주주 자본주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되면서 좋은 거버넌스의 개념이 단순히 기업의 소유 및 통제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 체계 마련으로 확장됨.

-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주주가치의 극대화가 핵심적인 가치였으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와 기업의 공동 가치를 추구하여 동반 성장하는 방향으로 핵심 가치가 전환됨.
- "결속력 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 for a 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를 주제로 2020년 1월 개최된 제50회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다보스포럼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함.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선언 이전에도 거버넌스의 개념에는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선언 이후 이해관계자에 관한 관심과 중요도가 더욱 높아짐.

❑ 미국 기업 거버넌스 학회가 제시하는 기업의 굿 거버넌스 원칙은 다음과 같음.

- ① 기업의 목적, 비전, 미션, 전략의 공유와 선순환이 잘되어야 함.
- ② 첫 번째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이사회와 전문성, 윤리성을 갖춘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해야 함.
- ③ 가치와 윤리가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
- ④ 앞의 원칙 ①, ②, ③을 규정하는 원칙과 규정체계가 있어야 함.
- ⑤ 앞의 원칙 ①, ②, ③, ④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외부 감시, 통제체계가 운영되어야 함.
- ⑥ 위험과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함.
- ⑦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되어야 함.
- ⑧ 이해관계자(주주, 고객, 공급자, 경쟁자, 투자자, 시민사회, 국제사회, 산업계, 정부 등)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참여해야 함.
- ⑨ 구성원 내재화를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완성해야 함.

〈그림 1〉 거버넌스의 구성 (미국 기업 거버넌스 학회, 2018)



자료 : 사회적가치연구원, “G in ESG” ; www.societycorp.gov.org, 2018.

3. 거버넌스 관련 국내 제도

❖ 거버넌스 관련 국내 제도는 ‘기업지배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내에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관심이 시작되어, 1999년 민간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으나 구속력이 있는 제도는 아니었음.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는 전현직 전문경영자, 금융계 대표, 법률 및 회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학계 및 연구기관 대표 등 14명이 모여 우리나라 기업 특성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하기 위해 출범하였음.
- 1999년 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등 다섯 개의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

❖ 2017년 3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가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한국거래소에서 선정한 기업지배구조 10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기업의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 10가지 핵심 원칙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주요 항목 중 투자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선정한 것임.
- 그러나 자율공시 제도는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적어 실효성에 한계점이 있었음.

❖ 이후 2019년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여, 자율공시 제도를 의무공시 제도로 전환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를 의무화함.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 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에 관한 규정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 「유가증권 공시규정」 제24조의2

제24조의2(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①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별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 원칙의 준수현황과 미준수 시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된 경우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정정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정하는 기한 이내에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공시매체 등을 통하여 정정신고의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시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 및 신고, 정정신고의 요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17년 3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 '19년부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22년부터는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되었으며, 공시 대상기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24년에는 자산 규모 5천억원 이상으로, '26년에는 전(全) 코스피 상장회사로 보고서 제출 대상기업이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임.
- '22년 결산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기업은 '22년 265개에서 '24년 406개, '26년 733개로 확대됨.

■ 코스피 상장 건설기업은 2023년 기준 23개이며, 2023년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건설기업은 15개임.

- '22년 결산 기준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 건설기업(한국거래소에 따른 업종 구분이 토목건설업, 건물건설업에 해당) 15개는 '23년 전체 코스피 상장 건설기업 23개의 65.2%에 해당함.
- '24년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가 확대되면 그 대상이 되는 건설기업은 17개로 확대되며, '26년부터는 전체 상장사인 23개 기업이 대상기업이 됨.

〈표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단계적 의무화 일정

구분	대상(자산 기준)	보고서 제출 기업 수 ¹⁾	보고서 제출 건설기업 수 ²⁾
'19~'21년	2조원 이상	175	8
'22년	1조원 이상	265	15
'24년	5천억원 이상	406	17
'26년	쉐 코스피 상장회사	733	23

주 : 1) 금융회사, 투자회사 등 제외('20년 결산 기준).

2) '22년 결산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3.7).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작성 방식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2019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원칙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표 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제	핵심원칙
기업지배구조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운영방향 및 중점사항(경영 투명성,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견제와 균형 추구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 기업 고유의 지배구조 특징(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
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정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감사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 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료 : 한국거래소.

■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에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지배구조(G)의 진단항목을 17개로 제시하고 있음.

- 지배구조 영역을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주주권리,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등 6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각의 범주에 대한 진단 항목을 제시함.

〈표 5〉 K-ESG 가이드라인 지배구조 영역 진단항목 체계

범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이사회 구성	G-1-1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G-1-2	사외이사 비율
	G-1-3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G-1-4	이사회 성별 다양성
	G-1-5	사외이사 전문성
이사회 활동	G-2-1	전체 이사 출석률
	G-2-2	사내이사 출석률
	G-2-3	이사회 산하 위원회
	G-2-4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권리	G-3-1	주주총회 소집 공고
	G-3-2	주주총회 개최일
	G-3-3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G-3-4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경영	G-4-1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감사기구	G-5-1	내부감사부서 설치
	G-5-2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G-6-1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

■ 기업의 거버넌스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거버넌스 관련 제도는 ‘거버넌스’가 아닌 ‘기업지배구조’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임.

-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 체계’로 정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이해관계자를 위하는지를 계량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임.
- ‘기업지배구조’는 ‘거버넌스’의 중요 요소로서,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이사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 감사기구의 마련 등을 확인하여 해당 기업의 기업지배구조의 수준을 측정하고 있음.

Ⅲ 건설업 거버넌스 현황

1. 건설업 거버넌스의 중요성

■ 건설업의 거버넌스는 타 산업과 본질적으로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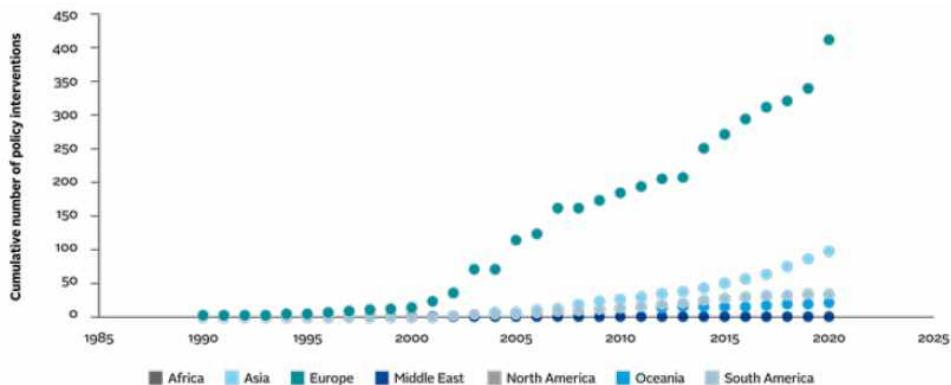
- 건설업이 신뢰성, 투명성, 책임감, 윤리 등과 같은 가치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할당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윤리와 규범을 준수하고, 모니터링 및 감사를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타 산업과 같음. ESG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것은 건설업의 비롯한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임.

■ 다만 건설업은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타 산업보다 큼.

■ 건설업의 대표적 특징은 수주산업이라는 점인데, 수주를 위한 자격조건으로서 좋은 거버넌스의 확립이 중요한 요인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음.

-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 수주의 성패가 기업의 향후 수익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특히 해외시장에서 기업 평가의 지표로서 ESG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제도 및 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 도입 측면에서 유럽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도 최근 ESG 관련 제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그림 2〉 참조).
- 국내에서도 PQ 심사기준과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요소에 ESG 관련 성과를 반영하고 있음.

〈그림 2〉 전 세계 ESG 관련 정책 수



주 : 의무 및 자발적 제도를 모두 포함함.

자료 :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Regulation database update : the unstoppable rise of RI policy", 2021.3.17.

■ 또한, 대규모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건설업의 특성상 수주뿐 아니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조건으로서도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높아짐.

- 건설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은 매우 중요한데, 자금조달의 조건으로서 ESG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
- 2006년 발표된 UN의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서 투자 및 자산 운용 원칙으로 ESG를 제시한 이후 ESG 투자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해외 건설과 관련하여 개도국 사업 금융 지원의 주요 수단인 다자개발은행의 투자자금 지원 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금융공사의 환경·사회 책임 기준이 주요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음.²⁾
- 무디스(Moody's), 피치(Fitch)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환경 오염, 탄소 배출, 안전 및 보건, 리스크 관리 등과 같은 ESG 평가 결과를 기업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음.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의 조건으로서 거버넌스의 중요성 외에도, 건설 사업은 수많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됨. 이들의 권리와 요구를 파악하여 조율하고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 체계'인 만큼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함. 건설업은 다수의 협력 업체와 수많은 근로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음.
- 건설업 생산과정의 복잡성은 이해관계 조율의 필요성을 높임.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와 요구를 조율하고 이들 모두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만 건설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건설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이 큰 산업이므로 이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큼.

- 건설산업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큰 산업임. 건설산업은 생산 및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의사결정 체계의 중요성이 매우 큼.

■ 건설업은 수많은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이 마주해야 하는 리스크가 매우 큼.

2) 박환표(2022.10.26.~10.28), “해외건설기업의 ESG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22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제42권 제2호(통권 제78집),

-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법률에 규제를 받는 산업임.
- 2022년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 붕괴 사고나 2023년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에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해당 기업에 엄청난 불이익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건설산업 전체의 이미지 실추 및 관련 규제 강화로 이어짐.

+ 거버넌스가 ESG 경영의 근간이라는 점에서도 환경과 사회 분야에서의 중요성이 높은 건설업의 특성상 거버넌스의 확립이 필수적임.

- 건설업은 환경과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서 많은 인력이 참여하며, 공급망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E와 S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
- ESG 경영의 핵심이 되는 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만 E와 S를 위한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 끝으로, 거버넌스는 건설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주요 열쇠가 될 수 있음.

-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부실 공사', '부정부패', '위험 산업', '비정규직', '환경 오염'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인식은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실제 조사 결과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낙후된 기술, 생산성 향상에 무관심한 기업,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 피하고 싶은 건설 일자리 등으로 나타남.
-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투자자, 협력사, 지역사회를 위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로부터의 탈피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표 6〉 건설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 ① **(낙후된 기술)** IoT(건설 9.1, 전산업 평균 11.9), 빅데이터(건설 4.5, 평균 14.1) 등 활용부진(고용정보원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도 조사, '18.1)
- ② **(생산성 향상에 무관심한 기업)** 건설근로자의 85.4%가 건설사가 아닌 팀·반장을 통해 시공에 참여(건설근로자 공제회 조사, '17.4)
- ③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 국민의 80.2%가 건설산업을 대표적인 불공정 산업으로 인식(국토부 설문조사, '17.10)
*불공정 하도급 > 입찰담합 > 갑질관행 순으로 불공정의 원인을 지적
- ④ **(피하고 싶은 건설 일자리)** 건설 일자리의 직업만족도, 건설 관련학과의 전공 선호도는 최하위권
*건설일용직, 용접공, 미장공은 직업만족도 최하위 직업(직업능력개발원, '14), 이공계 전공 인기도 분석결과, 건축·토목학과가 최하위권(동아일보, '16.3)

자료 : 국토교통부(2018.6.28), “건설산업 혁신방안”,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안건.

2. 건설기업 거버넌스 관련 활동

(1)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 2022년 기준 87,239개³⁾의 국내 건설기업 중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건설기업은 21개 사⁴⁾로, 매우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관련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건설기업 21곳은 전체 건설기업의 약 0.02%에 해당하며, 시공능력평가 40위 이내 기업이 대다수임.
- 이 외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없이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재한 약 23개 기업을 포함하면 전체 건설기업의 약 0.05%에 해당하는 기업이 거버넌스 관련 활동을 하고 있음.

■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건설기업은 대부분 지속가능경영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보고서에서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 사항을 정리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요약해 보여주고 있음.

-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NGO, 정부·언론·협회 등 유관기관, 주주·투자자, 학계 등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이나 대응 활동에 대해 정리해 나타냄.

3) 통계청(2023.12.14), “2022년 건설업조사”, (통계청의 건설업조사는 건설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업종으로 등록된 업체 중 2022년에 건설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4)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DL건설,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엔지니어링, KCC건설, 한라, 쌍용건설, IS동서, SGC이테크건설, 태왕이앤시, 대상건설 등

❑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중대성 평가 결과 등을 통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윤리 경영, 준법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실천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함.

- 대표적인 건설기업을 예로 들면, 삼성물산은 윤리적 기업문화, 현대건설은 경제적 수익 창출 및 지속 성장, 기술 혁신을 통한 스마트건설 기술 선도, 통합적 경영 리스크 관리, 대우건설은 R&D 역량 강화, 경영성과 및 수익 창출, 준법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실천을 주요 이슈로 선정함.
- 이들 기업은 공통으로 준법경영과 컴플라이언스 실천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거버넌스의 중요 요소로 꼽았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이사회 구성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이슈도 거버넌스 부문 이슈로 다루고 있음.

(2)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 국내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현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임.

-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에 따라 2023년 기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유가증권)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17년 3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후, '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22년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24년부터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확대됨.

❑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의 3가지 주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4개, 6개, 5개로 총 1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기업은 각 지표의 준수 여부를 기재하여 공시해야 하며, 각 지표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7〉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구분	핵심지표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② 전자투표 실시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구분	핵심지표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⑧ 집중투표제 채택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⑫ 독립적인 내무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⑬ 내무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자료 : 한국거래소.

2022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코스피 상장 건설기업은 총 15개임.

- 이는 2022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전체 기업(금융업 제외) 333개 중 4.5%, 코스피 상장 건설기업 23개(2023년 8월 기준) 중 65.2%를 차지함.

2022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를 공시한 15개 건설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3.1%로 전체 기업(333개)의 평균 준수율 62.4%보다 0.7%p 높으나 유의하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제출 건설기업은 15개 핵심지표 중 평균 9.5개를 준수하였으며, 전체 기업은 평균 9.3개의 핵심지표를 준수함.

건설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감사기구 관련 지표에서 78.7%로 가장 높았으며, 주주 관련 지표에서 51.7%로 가장 낮았음.

- 건설기업의 주주 관련 지표의 평균 준수율은 51.7%로 전체 평균(58.4%)보다 낮았지만, 이사회 관련 지표의 평균 준수율은 57.8%로 전체 평균(51.4%)보다 높았음.
- 감사기구 관련 지표의 평균 준수율은 78.7%로 전체 평균과 같았음.

항목별로 살펴보면,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항목에 대해 건설기업이 100%의 준수율을 보였으나, '⑧ 집중투표제 채택' 항목을 준수한 건설기업은 한 곳도 없었음.

- 전체 기업 평균 준수율에 비해 건설기업 평균 준수율이 높은 항목은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순이며, 전체 평균에 비해 건설기업 평균 준수율이 낮은 항목은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② 전자투표 실시' 순임.

〈표 8〉 2022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별 준수율

(단위 : %)

구분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건설업	51.7				57.8						78.7					63.1
	33.3	66.7	73.3	33.3	53.3	100	6.7	0	86.7	100	86.7	53.3	86.7	66.7	100	
전체	58.4				51.4						78.7					62.4
	31.4	80.1	74.9	47.1	41.3	78.7	19.5	3.3	66.1	99.7	90.1	49.5	92.5	63.7	97.9	

자료 : 한국거래소.

(3) 한국ESG기준원 평가 등급

■ 한국ESG기준원에서는 매년 코스피(유가증권) 상장회사와 코스닥 상장사 일부에 대해 ESG 평가를 통한 등급 부여 및 발표를 실시함.

- 지배구조의 경우 기업 관련 공시자료를, 환경·사회의 경우 공시자료와 기업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1차 평가 실시 후 기업 피드백 및 이사회 인터뷰 절차를 거쳐 평가함.
- 2023년은 1,049개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했으며 이 중 상장사가 987개사, 비상장사가 62개사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791개사임.

■ 한국ESG기준원의 ESG 등급은 S, A+, A, B+, B, C, D 등 7 등급으로 분류함.

- ESG 등급은 ESG 관리체계 및 위험의 수준을 나타내며 S는 탁월, A+는 매우우수, A는 우수, B+는 양호, B는 보통, C는 취약, D는 매우 취약을 의미함.

■ 코스피 상장 건설기업 22개⁵⁾의 한국ESG기준원 등급을 살펴보면, 지배구조 등급이

5) 2023년 12월 27일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 중 업종이 토목건설업과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기업임.

ESG 통합등급에 비해 B+와 B 등급에 더 집중되어있음(〈표 9〉 참조).

- ESG 통합등급에 따른 기업 수는 A 7개, B+ 5개, B 1개, C 5개, D 4개이나, 지배구조 등급에 따른 기업 수는 A 4개, B+ 6개, B 6개, C 2개, D 4개임. ESG 통합등급과 지배구조 등급의 기업 수를 비교해보면 지배구조 등급에 따른 기업 수가 ESG 통합등급에 따른 기업 수에 비해 A와 C 등급에서는 각각 3개씩 더 적고 B+와 B등급에서는 각각 1개, 5개 더 많음.
- 코스피 상장 건설기업의 경우 지배구조 등급의 편차가 비교적 적고 B+와 B 등급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음.

■ 건설기업과 전체기업의 지배구조 등급을 비교해보면, 건설기업의 지배구조 등급이 전체기업의 지배구조 등급에 비해 A+, C, D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은 적고 A, B+, B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은 높았음.

- 지배구조 등급 A+에 해당하는 건설기업은 없으므로 전체기업 중 A+에 해당하는 기업 비중인 1.1%p만큼 차이가 발생함.
- 각 지배구조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은 건설기업이 A, B+, B 등급에서 각각 3.4%p, 7.7%p, 10.0%p 높았고, C와 D 등급에서 각각 11.3%p, 8.7%p 낮았음.
- 평균적으로 건설기업의 지배구조 등급이 전체기업의 지배구조 등급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스피 상장 건설기업은 전체 건설기업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

〈표 9〉 한국ESG기준원 2023 지배구조 등급

(단위 : %)

구분	건설기업				전체기업		B-A	B-C
	ESG 통합등급		지배구조 등급		지배구조 등급			
	기업 수	비중(A)	기업 수	비중(B)	기업 수	비중(C)		
S	0	0.0%	0	0.0%	0	0.0%	0.0%p	0.0%p
A+	0	0.0%	0	0.0%	8	1.1%	0.0%p	-1.1%p
A	7	31.8%	4	18.2%	110	14.8%	-13.6%p	3.4%p
B+	5	22.7%	6	27.3%	146	19.6%	4.5%p	7.7%p
B	1	4.5%	6	27.3%	129	17.3%	22.7%p	10.0%p
C	5	22.7%	2	9.1%	152	20.4%	-13.6%p	-11.3%p
D	4	18.2%	4	18.2%	200	26.8%	0.0%p	-8.7%p
합계	22	100.0%	22	100.0%	745	100.0%	0.0%p	0.0%p

주 : 한국ESG기준원의 평가대상기업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만을 포함.

자료 : 한국ESG기준원.

3. 소결

■ 건설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특성상 타 산업보다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큼.

- 수주나 자금조달 등 성공적인 사업 수행의 조건으로서뿐 아니라 건설업에 연관되어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지켜나감으로써 건설업의 건전하고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함.

■ 건설기업의 거버넌스 관련 활동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중견 및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 ESG 경영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해당 기업의 활동 및 성과를 보고하는데, 건설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은 20여 곳에 불과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은 시공능력평가 40위 이내 기업이 대부분이며, 중견 및 중소기업의 ESG 활동은 미흡한 상황임.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는 15개 건설기업의 기업지배구조는 개선되고 있는 추이이며, 2022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전산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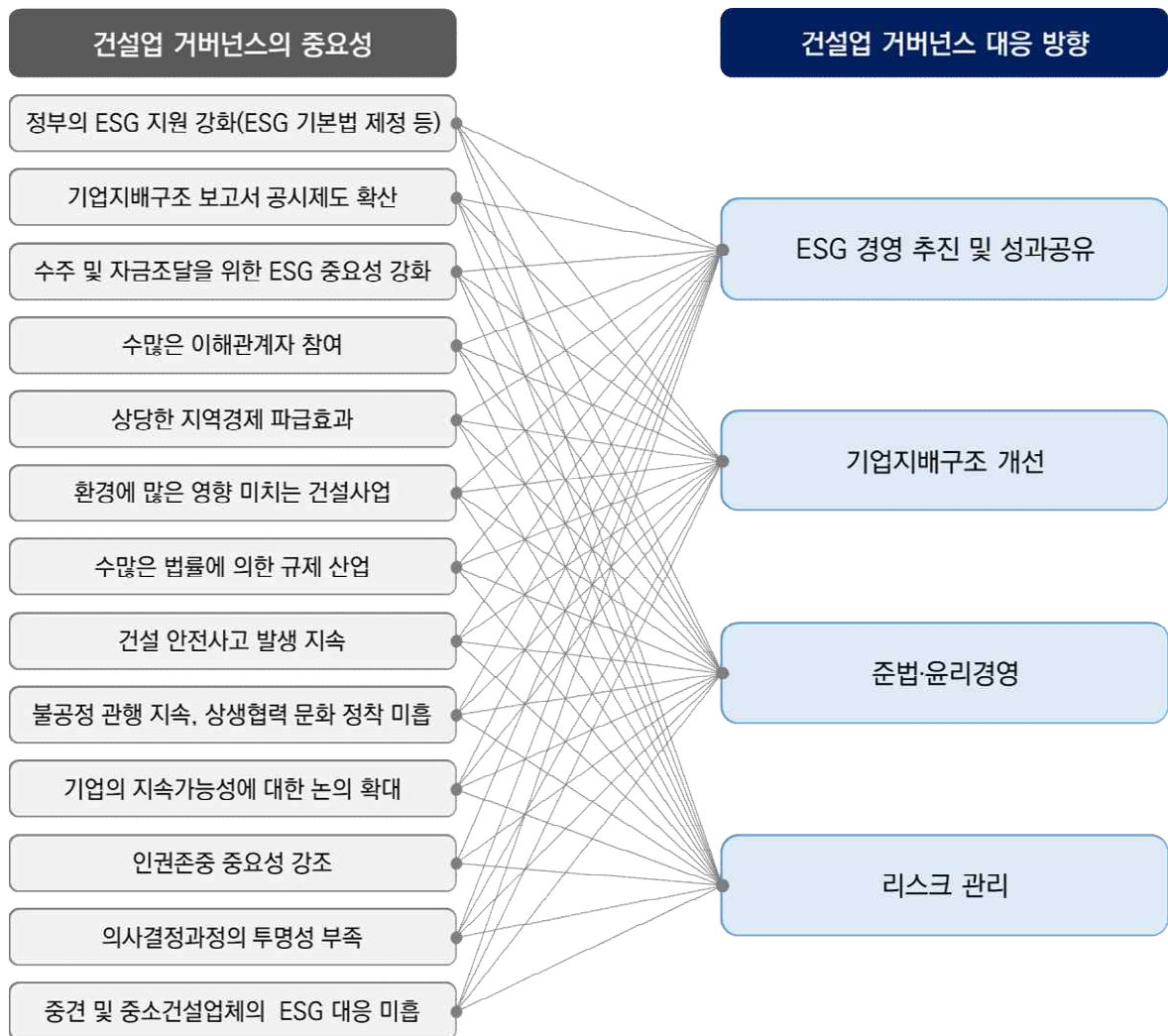
- 2022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15개 건설기업 중 14개 기업이 2021년에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를 공시했는데, 이들 기업의 평균 준수율은 2021년 58.1%에서 2022년 63.1%로 5.0%p 상승함.
- 2022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전체 기업 333개 중 2021년에도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290개로, 290개 기업의 2021년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0.0%임.
- 2022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건설기업(14개)의 평균 준수율(58.1%)이 전체기업(290개)의 평균 준수율(60.0%)보다 낮았지만, 2022년에는 건설기업(15개)의 평균 준수율(63.1%)이 전체기업(333개)의 평균 준수율(62.4%)보다 높았음.

■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등급은 건설기업이 전체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A, B+, B 등급에 속한 비중이 높았으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와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등급을 보유한 건설기업이 각각 15개, 22개로 87,239개에 달하는 전체 건설기업 대비 극히 일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기업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

IV 건설업 거버넌스 대응 방향

앞서 살펴본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과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 그리고 앞서 논의한 건설업 거버넌스 중요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업 거버넌스의 대응 방향을 도출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① ESG 경영 추진 및 성과공유, ② 기업지배구조 개선, ③ 준법·윤리경영, ④ 리스크 관리로 정리함.

〈그림 3〉 건설업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대응 방향



1. ESG 경영추진 및 성과공유

- + ESG 경영이 추진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는 ESG 경영의 핵심 분야, 또는 추진 원동력이라 할 수 있음.
 - 거버넌스는 ESG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ESG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ESG 경영추진 및 성과공유’를 거버넌스의 첫 번째 방향으로 설정함.
- +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2020)’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해 ESG 대응, ESG 평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주요 항목으로 제시함.
 -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의 거버넌스 관련 권고 지표는 다음 표와 같음.

〈표 10〉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2020)’의 거버넌스 관련 항목

항목	지표	비고
ESG 대응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의 파악/관리와 경영진의 역할
ESG 평가	ESG 위험 및 기회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ESG 프로세스 참여 방식

자료 : 한국거래소.

- + 거버넌스를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 체계’로 정의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ESG 경영을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경영’이라고 정의한다면, ESG 경영추진을 위한 첫 번째 선행 요건은 리더의 의지임.
 -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중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단기적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업이라면 ESG 경영에 관심이 없을 것임.
 - ESG 경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기적 이익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근시안적 관점에서 기업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리더를 보유한 기업은 ESG 경영을 추구하기가 어려움.
- + ESG 경영추진을 위한 두 번째 선행 요건은 ESG 경영 추진체계 확립을 통한 구성원의 동참 유도임.
 - 기업의 리더가 ESG 경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함.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ESG 개념, 목표, 성과 평가 등에 대해 조직 구성원 모두와 공유해야 함.

- ESG 경영 추진체계에 포함된 임원진은 주요 ESG 이슈를 파악하고 ESG 전략의 방향성을 수립하며, ESG 리스크 관리 지표 및 개선과제 제시하고 모니터링하며 평가해야 함.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그들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 확보가 필수적임.
- 사외이사 등으로 이루어진 ESG 위원회를 통해 ESG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나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할 수도 있고, 이사회 또는 기존의 위원회(사회책임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경영위원회 등)에서 ESG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음.

■ ESG 경영 추진체계 확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ESG 경영이 최고경영자 혹은 임원진으로부터의 Top-down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진으로부터의 Bottom-up 방식의 소통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ESG 경영 추진체계는 기업의 규모나 조직 구성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 내의 임원진과 실무진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임원진이 실무진에게 일방적으로 업무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무진 레벨에서도 ESG 관련 이슈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임원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ESG 전략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기업의 ESG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조직 구성원과 공유해야 함.

- ESG 성과의 정량적 측정은 ESG 성과 파악에 도움을 주며,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음. ESG 목표 달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팀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함으로써 ESG 확립을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음.

2. 기업지배구조 개선

■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의 권리 보호,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다루는 것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제장치라 할 수 있음.

- 3장 4절에서 다룬 바와 같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에서는 주주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미리 이루어지는지, 전자투표를 실시하는지,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에 개최하는지,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을 주주에게 통지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함.
-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보유 여부, 내부 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여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부적합한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여부, 장기 재

직 사외이사 부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사회와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등을 평가함.

- 감사기구와 관련해서는 내부 감사기구에 대한 교육 제공,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 설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외부 감사인과의 회의 개최 여부, 내부 감사기구의 경영 관련 중요 정보 접근 가능성 등을 확인함.

■ 기업지배구조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기업의 거버넌스 현황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와 같이 계량적 지표로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기업의 거버넌스 현황 파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의 단계적 확산에서 볼 수 있듯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제도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거버넌스의 측정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기업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기업지배구조 평가항목에 관한 관심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기업지배구조 평가대상이 되는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지배구조를 잘 갖추는 것은 기업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유도 및 관리 감독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수주 또는 자금조달 시 기업 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 주주 권리 보호,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은 기업의 올바른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수주 또는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 평가 지표로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임.
-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와 같은 기본적인 지표부터 시작하여, 여러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에서의 평가항목을 파악하여 그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는 지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내 건설기업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있거나 가족 경영체제인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기업의 경우 계열사와의 관계로 인해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음. 가족 경영체제인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이는 한국 기업이 다른 국가의 기업에 비해 저평가되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함.

3. 준법·윤리경영

■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위한 경영 활동임.**

- 준법경영은 기업을 둘러싼 많은 법규분 아니라 기업의 규범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활동을 의미함.
- 윤리경영은 기업윤리의 실천을 강조한 경영활동임. 기업윤리는 윤리적·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부패, 부실 경영, 환경오염, 임금체불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윤리적·도덕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행위, 즉,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인간 중심적 경영, 생산성과 품질 향상, 자연보호 등의 행동을 지향함.

■ **건설업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부패·부실’의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점에서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은 건설기업에 필수적인 활동임.**

- 건설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수많은 계약 관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우리 사회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국민이 건설업에 기대하는 사회 경제적 요구 수준 역시 점차 높아가는 데 반해 실제 건설업 실상은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준법경영, 윤리경영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위한 의사결정을 늘려나감으로써 건설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탈피해 나가야 함.

■ **준법·윤리경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 내 준법·윤리경영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 기업의 비전이나 목표, 철학적 이념 등을 수립하고 추진 로드맵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함. 건설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행상 이루어지는 부패 유발 요인의 파악 및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조직에 적합한 윤리 규범 마련 및 규정 제정이 필요함.
- 준법경영 또는 윤리경영 추진조직을 마련하여 준법 및 윤리경영 활동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피드백, 제재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참여 주체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내·외 홍보활동과 교육활동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업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임직원 윤리 현장을 제작, 공표하고 주기적으로 윤리 현장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법 의식과 윤리 의식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ISO37001 인증 취득 등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 및 운영하는 것도 준법·윤리 경영의 좋은 방법의 하나임.
- 건설기업 윤리 현장과 컴플라이언스 예방체계 예시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4〉 윤리헌장(좌)과 컴플라이언스 예방체계(우) 예시

<p>대우건설 임직원 윤리헌장</p> <p>① 우리는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 윤리적 기업문화를 조성한다.</p> <p>② 우리는 고객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여 고객 감동 경영을 실천한다.</p> <p>③ 우리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평등 실현에 앞장선다.</p> <p>④ 우리는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에 관련한 국제협약과 각국의 법규를 준수한다.</p> <p>⑤ 우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p> <p>⑥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p> <p>⑦ 우리는 도전과 열정, 자율과 책임의 핵심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인재가 된다.</p>	<p>공정거래</p> <p>부당공동행위(담합 등) 금지 부당지원 금지 등</p>	<p>IT/정보보안</p> <p>회사/개인정보 유출 방지 불법 S/W 사용 금지 등</p>
	<p>국내 부패방지</p> <p>뇌물공여 근절 비리/부정행위 근절 등</p>	<p>표시광고</p> <p>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표시/광고기준 준수 등</p>
	<p>해외 부패방지</p> <p>부당공동행위(담합) 금지 뇌물공여 근절</p>	<p>HSE-Q</p> <p>안전/보건/환경 관리기준 준수 부실시공 요소 사전차단 등</p>
	<p>상생협력</p> <p>부당한 차별취급 금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 등</p>	<p>고용노동</p> <p>불법고용 금지 차별처우 금지 등</p>

자료 : 2023 대우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86.

❖ 조직 내 준법·윤리경영의 내재화를 위해서는 임직원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교육, 협력업체를 위한 교육 등을 별도로 마련해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행동강령의 위반이 우려되는 상황 발생 시 불이익 걱정 없이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일례로, 글로벌 건설기업 Skanska는 홈페이지를 통해 행동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한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관리자나 인사부, 법무부, 해당 부서의 윤리위원회 등에 문의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 외부 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Skanska 행동강령 핫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함.

4. 리스크 관리

❖ 리스크 관리는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 및 분석하고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및 수준 등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임.

- ESG 경영은 중장기적 가치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기에,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ESG 경영의 목적임과 동시에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영의 조건이기도 함.
- 기업에 리스크 발생 시 그 피해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항목임.

■ 건설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리스크는 그 유형에 따라 재무 리스크, 사업 리스크, 환경 리스크, 안전보건 리스크, 공급망 리스크, 인권 리스크, 윤리·준법 리스크, 정보보안 리스크, 품질 리스크 등 매우 다양함.
- 다양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각각의 실무 부서에서 임원진, 최고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리스크를 보고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리스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리스크 감소 방안과 더불어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
- 리스크 관리체계 예시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5〉 리스크 관리체계 예시

구분	리스크 유형	발생가능성	영향 정도	담당 조직
재무/운영	재무 리스크	L	M	재무관리실, IR담당, 재경기획팀
	사업 리스크	M	M	예산관리실, 글로벌지원실
환경	환경 리스크	M	M	환경관리팀, 지속가능경영팀
사회	안전보건 리스크	M	H	안전관리본부
	공급망 리스크	M	MH	구매지원팀
	인권 리스크	M	MH	인력운영팀
지배구조	윤리·준법 리스크	M	M	법무실
		ML	ML	감사실
	정보보안 리스크	M	M	보안운영센터
품질	품질 리스크	M	H	품질전략실

자료 : 2023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86.

■ 건설프로젝트의 모든 생애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선제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수주 이전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각 단계에 맞는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설 사업에 따라, 또는 비슷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각 사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리스크는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 수행 시 그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많은 법률에 규제받는 건설업의 특성상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약하지만, ESG 관련 리스크나 사회, 문화적 리스크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재무리스크나 사업리스크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 목표나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나 사회, 문화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V 결론

- ❖ 거버넌스, 즉,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주제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거버넌스의 대응 방향으로 ① ESG 경영 추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 ② 기업지배구조 개선, ③ 준법·윤리경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 ④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해 논의함.

 - 거버넌스는 곧 시스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대응 방향별로 개별 기업에 적합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함.
 - 또한, 각각의 대응 방향에서 리더십과 교육, 협의체 구성과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소통, 선제적 대응, 지속적 모니터링 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 거버넌스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 할 수 있음.

- ❖ 기업의 효율적 시스템 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스템만으로는 ESG가 추구하는 목표를 완벽히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근본적으로 건설업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공유해야 함.

 - 거버넌스 측정 지표 마련을 통한 감독이나 평가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이 있음.

- ❖ 한 명의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현재만을 생각해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에 미래를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존중하는 성숙한 법인격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 공동체 의식, 도덕심, 신뢰, 배려, 존중 등과 같은 가치는 여러 사건 및 사고로 인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근간임. 이러한 가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므로, 협업과 상생을 위한 기업의 인식 및 가치 전환이 필요함.

- ❖ 정부, 발주자부터 ESG 경영을 실천하고 기업과 이해관계자 하나하나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건설업에 임한다면 건설업의 미래는 속도와 관계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정부와 발주자, 시공사와 협력업체 모두가 큰 조직은 큰 조직대로, 작은 조직은 작은 조직대로, 그 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 내에서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함.
- 조직에 몸담고 있는 개개인도 ESG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에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과 더불어 근본적 가치 추구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 ESG 경영은 건설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인식의 전환과 올바른 가치 추구, 조직에 적합한 효율적 시스템 마련을 통해 건설업의 긍정적인 변화 이루어지기를 바람.

이지혜 연구위원(jihyelee@cerik.re.kr)